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⑦ 의상봉



“의상, 이리로 오시게”

의상봉은 해발 502m로 고양시 덕양구에 속한다. 의상대사가 머물렀던 곳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성능대사의 <북한지>에는 의상봉이라는 이름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용출봉 서쪽에 있다는 기록봉이 의상봉임을 나타내고 있어, 미륵봉과 의상봉이라는 이름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의상봉 아래에 있는 국녕사에서 의상대사가 참선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국녕사는 북한산성 축성 후 총 86칸에 이르는 큰 규모의 승영사찰로 창건되었는데 사찰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사명당 유정이 수도를 하던 터로 추정된다. 창건 후 자세한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1991년 화재로 모두 불에 탄 것을 능인선원에서 중창하였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의상봉과 원효봉은 신라의 두 고승이며 우리나라 불교의 커다란 맥인 원효와 의상을 상징하는 매우 유서 깊은 곳이다. 원효가 당나라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온 의상을 불러 의상봉에 안내하고 자신은 원효봉에 올라 서로 바라보며 참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오늘처럼 맑은 바람이 부는 밤이면 의상 스님은 삼매에 들곤 했다. 마당의 댓잎을 흔드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다면 애써지 않아도 저절로 깊은 선정을 할 수 있었다. 이 시간만큼은 신라로 돌아가 타국 생활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위로 받을 수 있었다.

당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오 년 여의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신라가 생각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의상 스님은 선정에 들어 고향을 다녀오고, 황복사에 들러 은사님 안병하신가를 보고, 그리운 이들의 안부를 차례로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토록 보고픈 원효 스님만은 만날 수 없었다. 아무리 정신을 집중하여 몰입을 하여도 원효스님이 계신 곳은 커녕 그의 모습조차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움은 커져만 갔다. 오늘은 원효 스님을 뵈 수 있을까.

의상 스님은 읽고 있던 경전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찬물로 얼굴을 씻은 다음 조용히 앉아 명상에 잠겼다. 잠깐 사이 깊은 삼매에 들어간 그는 오늘, 원효스님을 뵈지 않고는 회향하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을 다졌다. 어느 순간, 바람이 멎고 사방이 고요해지더니 별 하나가 반짝했다 싶었는데 꿈결처럼 원효 스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의상, 의상, 이제 그만 하시고 이리로 오시게.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의상은 반갑고 놀라운 마음에 서둘러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갔다. 익숙한 산과 들을 지나 목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북한산 봉우리였다.

동이 트려면 먼 시간인데 누군가 봉우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별도로 반짝이는 눈빛하며, 큼직한 한 손놀림을 보아하니 원효스님이 틀림없었다. 의상은 가까이 다가 원효 스님을 바라보았다. 원효

스님은 이마에 흐르는 땀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무언가에 열중해 있었다. 그는 봉우리 둘레를 걸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살피고 있었다. 행여 밤사이 산 짐승이 머물다 갔는지, 그래서 깨닫지 못한 흔적이라도 남겼는지, 봉우리 어느 한 귀퉁이라도 바람에 쓸려 떨어져 나갔는지, 그 손길에서 오래된 정성과 세심함이 느껴졌다. 원효 스님은 봉우리위에 합부로 흠어져 있는 나뭇가지며 풀뿌리를 손바닥으로 쓸어 내고는 의상을 향해 앉았다.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이 온 산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어서 오시게, 의상.”

“스님, 원효 스님! 참으로 뵈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님을 찾았는지요, 어찌하여 이제야 모습을 보이십니까.”

“허허, 나는 쪽 스님 곁에 있었는걸요. 행여 스님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하여 조심한 것 뿐이지요. 오늘 그대의 소식을 들었소. 당나라에선 스님을 일컬어 ‘해동의 큰 나무’라 한다지요. 스승이신 지엄 스님조차 ‘그 나무가 얼마나 큰 지 나뭇가지가 신라를 덮고 당나라도 덮을 것’이라고 그대를 칭송한다하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이오, 하여, 내가 오늘 그대를 부른 것이요, 부디 더욱 정진하시어 이 나라에 부처님 법이 두루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오. 신라의 법이 되어 주시오, 내 그대를 위해 이 봉우리를 마련했소.”

원효가 당에 있는 의상 위해 마련 의상 삼매 들어 당에서 건너와

원효스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달리 표현할 수 없었던 의상은 한동안 깊은 숨을 쉬어야 했다.

“스님, 이렇게 훌륭한 수행 처를 만들어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비록 지역만리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제가 어찌 공부를 게을리 하겠습니까. 저를 위해 보살펴 주신 이 봉우리에 앉아 정진 또 정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바람이 부드럽게 의상의 얼굴을 훑고는 원효 쪽을 향해 지나가고, 어둠을 밀어내며 첫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다.

산 밑의 사람들 중 누구도 이 봉우리에서 참선하는 의상을 본 사람은 없었다. 다만 산짐승들은 알고 있었다. 당나라에 있는 의상이 높은 법력으로 삼매에 들면 몸을 자유로이 움직여 이 봉우리를 찾아와 원효 스님과 법담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이를 지켜본 산짐승들 사이에서 이 봉우리는 의상봉이라 불렀고, 세월이 흘러 어느새 사람들도 이곳을 의상봉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신라 ‘화엄종’의 창시자로서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전국에 수많은 사찰을 세워 신라불교의 번성을 이끈 의상. 그는 원효와 함께 신라 불교의 큰 별이었다.

<애기꾼> 전현서

선율도 미소도 “아름다워라 백제 관음이어”



신종일 기자 일본 관서 교찰을 가다

⑦ 나라 호류지

일본어로 ‘백제’는 ‘쿠다라(くだら)’라고 읽는다. 그들이 사용하는 특유의 한문 음훈이 ‘백제’라는 단어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음훈을 붙이지 제대로 설명하는 일본인은 거의 없다. 다만 추정만을 해 볼 뿐이다.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한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은 사견으로 “나라를 ‘나라(奈良)’라고 쓰지만 이들은 ‘나라’로 발음한다”면서 “당시 일본인들에게는 백제가 ‘큰 나라’였을테니 이 말이 변용돼 ‘くだ라’라고 읽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관서 지방의 나라는 710년에서 784년까지 일본의 수도였고, 백제로부터 불교를 최초로 전파받은 곳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한반도 백제 문화의 영향이 가장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이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백제는 동북아 해상 강국이었고 ‘큰 나라’였다.

일본 정치와 불교의 중흥을 이끌던 현재에도 추앙을 받고 있는 쇼토쿠 태자(聖德太子) 역시 고구려 승려인 혜자와 백제 승려인 혜충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5계를 수지했다. 그리고 호류지(法隆寺)와 사천왕사(四天王寺) 등 일본 각지에 많은 사원을 세웠다. 일본 교찰에 가면 쇼토쿠 태자의 진영이 모셔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라의 호류지는 쇼토쿠 태자가 세운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이다. 스이코 양식인 금당(金堂)·오중탑(五重塔)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西院)과, 몽전(夢殿)을 중심으로 하는 동원(東院)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대표 문화재로는 약사여래상·석가상존불상·아미타삼존불상 등이 있으며, 금당 내부의 벽화는 고구려 영양왕 21년(610)에 고구려 승려 담징이 그린 것이다. 이는 중국의 원강 석불과 경주의 석굴암과 더불어 동양 3대 미술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 밖에도 수백 점의 불교 문화재가 소장돼 있으며, 이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금당 벽화와 더불어 호류지를 대표하는 문화재는 바로 ‘백제관음상’이다. 아스카 시대에 조성된 이 불상

은 일본 국보 1호 ‘목조미륵반가사유상’과 함께 일본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 일본 목조미륵반가사유상이 한국산 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백제 관음상은 백제 도래인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붙여진 이름이다. 백제의 조각이 일본 조각사에 공헌한 하나의 예이다.

일본 불상으로는 드물게 높이 2.8m에 달하지만 날렵한 몸매와 섬세한 손동작에는 절로 ‘아름답다’는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의 평론가 가메이 가즈이치로는 <야마토 고사 품물지>에서 백제관음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백제관음 앞에 서는 순간, 심연을 헤매는 것 같은 불가사의한 선율이 되살아 나왔다. 흰 불꽃이 하늘하늘 피어올라 그대로 영원 속에 응결된 듯한 모습을 접할 때 우리는 침묵하

쇼토쿠 태자가 발원 건립한 일본 현존 최古 목조 건축물 장엄한 백제관음엔 탄성만이

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나는 불교도가 아니다. 그러나 망연히 서서 마음 속에서 우리나라의 예배를 올렸다.”

한국 대표 문화재 평론가인 유홍준 명지대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에서 백제관음상을 예찬했다.

“백제관음의 측면은 정말로 신비하고 아름답다. 거룩하고 우아한 몸매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 왼손에 정병을 살포시 들고 천의 자락을 발아래까지 내려뜨린 채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에서는 ‘아름다워라 백제관음이어’라는 탄성 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백제 관음상을 다시 올려봤다. 관음상 특유의 보일 듯 말듯 한 미소가 환희롭다. 백제의 기술로 만들어진 관음은 오늘날도 중생들에게 ‘구세대비(救世大悲)’를 실천하라는 무언의 법문을 설하고 있었다. molp79@hyunbul.com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구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니다.



호류지(法隆寺)의 대표 성보문화재 백제관음상. 백제의 조각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반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호류지 전경. 쇼토쿠 태자의 발원으로 세워진 일본 현존 최고 목조건축물이다.

지우스님과 함께하는 범음의 큰 메아리!

● 지우스님 독경 CD 신명나는 회심곡



- * 지우스님 악력 *
- 1967년 대구 안국사 보성스님을 은사로 출가되도
 - 영산재 범음법 배라밀 예술단장(법배:바라춤, 범북, 회심곡)
 - 문화공보부 등록제411호 홍보위원
 - 동국불교 전법대학교 졸업(1992년 1기생)
 - 영남미술작가협회 영남총본부심사위원
 - 한양미술작가협회(영남총본부 초대작가)
 - 현 배라밀예술단 단장
 - 2003년 3월해군 참모총장 대장 장정길 감사패
 - 2006년 5월제8군단장 중장 이상위 감사패
 - 2007년 2월 군수사령관 중장 양원모 감사패
 - 2007년 10월 제1군사령관 대장 김태영 감사패
 - 2013년 4월 경북직업훈련고 도소장 이경우 감사패

● 각종행사 사진



● 배라밀 예술단이 하는일

영산대제 및 산사음악회, 예수재, 49재, 구병시식, 차량고사, 안택 등 각종 불교행사를 깊은 신심으로 지극정성 여법하게 봉행하여 드립니다.

<작법무(바라춤, 니비춤) 회심곡>

● 법당마다 가득자리를 채운 지우스님 작품들

